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6.5)



미국 트럼프 행정부, 파리 기후변화협정 전격 탈퇴 선언

-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기준 6.1(목) 오후,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 선언
- 즉각적으로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고, 재정적·경제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
- "나는 피츠버그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되었지 파리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"
- 피츠버그는 현재 낙후된 미국 제조업 지역인 러스트벨트(Rust Belt)의 대표 도시로, 자국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 표명
- 중국, 프랑스,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다짐
- 과학계에 따르면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의 탈퇴로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낮춘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고 전망 [\(관련 기사\)](#)

시사점

- 일방적 파리 협정 탈퇴로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 추락과 더불어, 최근 리커창 총리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세계 리더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 대두 [\(관련 기사\)](#)
- 파리 협정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, 다른 회원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정 이행에 동참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 논의 동향 파악 필요
-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립과학재단(NSF)에 대해 "기후변화 연구에 세금을 낭비했다"며 예산을 11% 삭감하는 등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 위축 우려 [\(관련 기사\)](#)



중국, 남극조약당사국 회의 개최를 계기로 남극활동 주도 의지 드러내

- 제40회 남극조약당사국회의(ATCM)가 5.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장가오리(Zhang Gaoli) 부총리가 참석
- 장가오리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남극조약정신을 지지하고 이행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과 남극 관리, 국제질서 참여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남극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언급
- 중국은 '우리의 남극, 보호와 활용'이라는 특별 세션을 다수의 연사를 초대한 강연회 형태로 마련해서 5월 23일 ATCM 첫날 오후 2시간 동안 진행
- 중국 국가해양국은 이번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맞춰 백서 성격의 남극사업보고서를 발표
- 중국은 현재 남극에 4개의 기지 (2개 상주, 2개 비상주)와 1척의 연구선을 운영하고 있고 과학성과 역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남극에 5번째 기지를 계획대로 완성하는 등 남극 조사 역량 강화 다짐
- 국가해양국 극지고찰판공실은 미국, 러시아, 독일, 노르웨이 등의 남극 전문 기관들과 협력약정을 맺는 등 국제협력 강화에 주력 [\(관련 기사\)](#)

시사점

-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ATCM을 계기로 중국 남극 정책의 저변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, 그리고 남극 활용에 대한 기대와 의향이 있음을 확인
- 중국은 남극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지/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연구와 운영 양면 협력 강화 필요



러시아, 북극 군사연구센터 설립 계획

-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2017년 내 북극 군사 연구 및 시험 센터를 설립키로 결정(러시아 관영 Sputnik 보도, 5.26)
- 군사연구센터는 북극 지역에 활용할 무기와 군사 보급 체계 개발에 활용될 것
- 러시아는 최근 몇년 간 북극 사령부(Arctic command)를 설치하고, 14개의 비행장과 16개의 심수항(deepwater port), 40척의 쇄빙선을 확보하는 등 북극 지역 군사 투자를 크게 확장하는 추세
- 특히 현재 11척의 쇄빙선을 건조하는 등 쇄빙선 확보를 통한 북극 지역 군사·안보 영향력 신장에 주력 [\(관련 기사\)](#)

시사점

-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자 확대로 미국, 캐나다 등 타 북극권 국가와의 마찰 가능성 상승
- 군사적 투자와 별개로 쇄빙선 확보, 북극에너지 및 항로 관련 인프라 투자 등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